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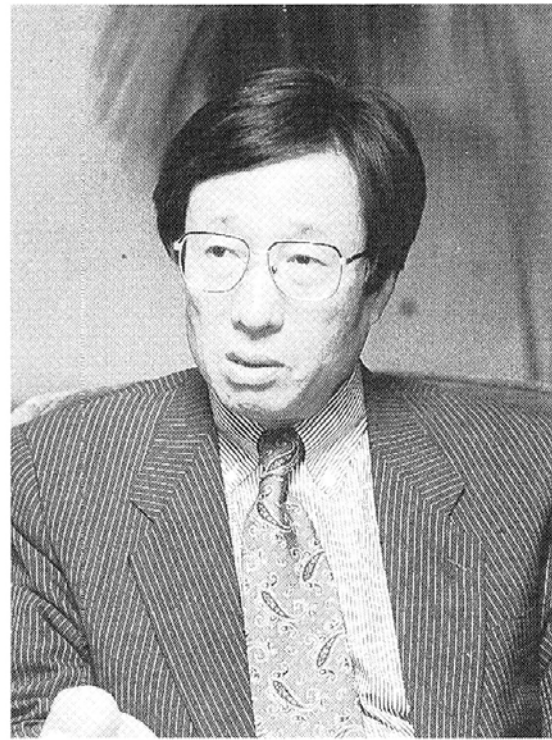
“옛것 보존은 문화창조 원동력”

기관 50돌 맞은 국립중앙박물관 정 양 모 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1일로 개관 50주년을 맞았다. 45년 9월 경복궁에서 처음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전쟁 당시 2만점의 유물을 부산으로 피신시켜야 하는 수난을 겪었다. 그후에도 4차례나 이삿짐을 싸고 남산(53년), 덕수궁 석조전(55년), 경복궁(72년), 구 조선통독부 건물(86년)로 옮겨 다녔던 서글픈 역사를 안고 있다. 개관 50돌을 맞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날을 되돌아 보는 ‘국립박물관 개관 50

돌을 붙인것으로 복원할 성질이 아니라 고 생각한다. 새 박물관 청사는 용산가족공원에 세워진다. 오는 10월경 설계자가 선정되고 2천년대 초에는 처음으로 제집을 갖게 되어 마지막 이사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지난 50년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우선 외형적으로 '45년 당시 5만9천 여점에 불과하던 소장 유물이 현재 12만

안 력
· 34 · 38 · 83
· 서 울 대 구 제 6 대
· 서울대 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을 창립
· 88년 한국미술사학회
· 90년 한국미술사학회
· 91년 한국미술사학회



수요 인터뷰

주년 발자취전'과 학술강연회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구 조선통독부 건물해체와 용산에 마련하는 새 박물관 청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 정양모 관장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났다.

50년간 4차례 이삿짐

-국립박물관의 발자취는 창으로 눈을 접습니다. 지금도 일제가 지은 건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전물은

여점으로 거의 2배이상 불어났습니다. 관람객수는 4천5백여명 이었던것이 한해에 5백만여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관람객들이 안내관을 꼼꼼히 읽어 관람속도가 늘어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물 대부분은 불교유적으로 박물관에도 불교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불교유적은 불자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임에도 전시유물로 되어있어

12만여점 소장... “불교 다시 문화주체 됐으면” 용산 새청사에 범당마련 불교성보 조화배치

곧 철거하고 새 청사를 마련하게 되어 개관 50돌을 맞는 감회가 남다를 텐데요.

▲1908년 일본이 식민정착수행을 위해 청경궁에 황실박물관을 세운것이 국립박물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45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편된후 50년이란 짧은 역사의속에서 한번도 제집을 갖지 못하고 옮겨다닌 것은 문화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김재원(초대관장), 최순우(4대관장)선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나마 유물이 훼손되지 않고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이어올수 있어 선배들의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박물관 이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박물관 이전에 대한 한·반양론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이전에 따른 경비가 수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물관이전에는 현 건물 철거비 47억원을 포함해 부대시설을 옮기는 것까지 1백억원의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구 통독부건물을 돌(石)집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전물은 콘크리트에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유물 가운데 시작적인 것은 모두 불교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불교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교유물은 아쉽게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탐이 도굴당하고 불상이나 탱화가 도난당했습니다. 이나마 박물관에 옮겨 놓지 않았다면 모두 없어졌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불자로서 불교성보가 전시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유물을 과학적으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건립하는 박물관에는 불교관 일부에 10m 높이로 범당을 세울 계획입니다. 불상이 있다면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불자들이 법회는 볼 수 없어도 참배하는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불교유적의 도난과 훼손은 불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불교유물을 박물관에만 보관할 수는

없을텐데 본래 자리로 돌아갈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또한 불교계에서도 사찰 박물관을 건립하는등 도난과 훼손에 대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조언을 합니다.

한해 관람객 5백만명

▲불교가 이땅에 번창했던것은 스님들의 좌선만으로 이루어진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을 끌어들이고 신심을 일으키는 장엄구나 조형물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불교계에서 이에대한 관심과 연구를 펼쳐 한국미술의 창조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불교가 한국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교유물은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불교계가 앞장서서 옛것을 보존하고 새문화 창조를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교계에는 이러한 인목이 부족합니다. 불사라는 명목아래 무조건 크게짓고 모든것을 금으로 도금하려 합니다. 이는 불사의 본뜻을 망칠뿐 아니라 자연까지 훼손하게 됩니다.

-말마찬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대교로 국보전'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

처럼 우리문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늘고 있는데 한국미술의 우수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국미술의 우수성은 자연과 하나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보일려고 하지않고 자연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문화를 감상하는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끝난 '대교로국보전'은 바로 이러한 우리문화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자리였습니다.

-관장님은 한국 도자기사의 틀을 다진 '도자기 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31년간 박물관을 지켜오면서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면.

▲국민들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집안 화려하고 내실이 없다면 박물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새로 건립되는 박물관은 외형보다 내실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모아 영구히 보존하는일에 미력하나마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준엽 기자

나의 수행일기

유순현 (승경대교주)



나와 불교와의 인연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갔던 일이 먼저 떠오른다.

법당에 들어서면 부처님의 가슴에 들어앉는 것 같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의 믿음은 싹이 텄는지도 모른다. 그때만 해도 어린 나의 마음에 법당은 서려있었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학도의 꿈인 고시에 도전하기 위하여 충남 장곡사에서 동북쪽으로 농선을 타고 40분 이상의 거리인 철갑산 가치네 절에서 1년동안 공부 하던 일... 불교를 믿는다고 보다는 하루하루의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며 하루의 편안함을 기원하기 위하여 회부연 새벽안개가 마치 구름처럼 멀리 산허리에 떠보이는 꽤나 높은 산신당에 새벽에 다짐을 올리는 정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5년 미국 하와이에서 교통사고로 남편을 사별하고 세상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를 수십번. 재물에 대한 마

유로 불교모임인 정목회의 회원이 되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름대로 불교에 접근하려고 애써왔고 그 무렵 김천에 있는 직지사에서 '대련회'로 보살계를 받았다.

매년 음력 정초에는 강원도 오대산 보궁에 참배하고 한해동안의 바른생활과 바른 마음가짐을 부처님 전에 머리숙여 약속 드린 것이다.

상원사 앞마당에서 한복의 동양화 같은 눈빛으로 오대산 월정사 계곡을 바라볼 때 자연을 품어 안은 것 같은 상쾌함과 그 넉넉한 마음 영원하기를 발원하던 그 행복감을 말과 글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

나에게 건강이 있는 한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자고 다짐한다. 가급적 일요일마다 북한산 승가

“어떻게 하면 연꽃처럼...” 매일 다짐

쉽지 않은 '마음 비우기'... 최근 육조단경 공부

음을 비우고 빈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아 보자고 다짐하고 마음비우기로 작심하기도 수백번 해보았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후 다시 태어나는 아픔으로 학문의 도를 닦기로 결심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과정에 승부를 걸었다.

오직 일념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학문의 조그마한 분야에서 하나의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내(自我)를 관조할 수 있는 많은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민학을 하면서 쌓여있는 양공같은 것을 걸르기 위하여 어느해 여름 함께 시간을 마련해서 여수에 있는 향일암에 철야정진을 간 일이 있었다. 남해 앞바다를 가까이 두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하면서 염주를 돌리고 있는데 왜 마음의 집중은 안되고 처마끝에 떨어지는 낙숫물에 밖에 벗어 놓은 등산화 젖을 생각만 날까. 아직 신심이 멀었구나 하는 후회를 하면서 되돌아온 일도 있었다. 나름대로 불심을 키우고 불심으로 살려도 두터운 업은 쉬 사라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면 신심으로 삼매의 경지를 체험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의 소원이던 때에 황규선박사(치과의원원장)의 권



사에 가서 석불전에 108배를 하고 나름대로 원을 세워 정진하고 있지만 늘 이제부터라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는 것은 웬일일까.

노년에 접어들어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정신적인 지도스님으로 법산스님(동국대학교 정각원장)을 뵈게 된 것은 나의 신행생활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매달 첫 토요일 오후 동국대 정각원에서 법산스님의 지도로 육조 혜능스님의 육조단경을 공부하고 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의 구절은 달마선종과 깊은 관계가 있고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써라' 이것이 보살행이고 그것이 여래행이라는 진리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위 없는 대도는 옅은 지혜나 가벼운 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는 진리도 함께...

오늘도 내일도 고요한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고요한 새벽은 이제 신선한 아침을 맞아 밝은 빛을 드러내듯이 나의 수행도 조용한 움직임으로 시작한다. 아마타 불의 무량광이 누리에 퍼질 때까지.

어떻게 하면 흐린 세상에 있으면서도 물 안물은 연꽃과 같게 되며 어떻게 하면 번뇌 속에 살아가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게 되리까.

황금빛 도자기 불상 지금 선택하십시오



(7저 : 23.1cm)

(5저 : 17.5cm)

(1저 : 33cm)

일천불 조성

삼천불 조성

일만불 조성

(주)국보도자기, 국보기획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 B/D 301호
- 공장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장삼리
- 전화 : (02)723~4260/1, FAX : (02)723~4260

대표 권영천 합장

황금이 빛과 영을 담습니다
- 직접 손으로 황금을 빚어 1380°C에서 구워낸 도자기를 빚습니다. -
새로 개발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도자기로 만든 불상입니다.
이 없으신지요.
도자기로 만든 불상을 조성해 볼 계획